

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앓은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운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앞에 일어난 사건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행 2:4) 따라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변화된 삶을 위해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3절과 4절에 베드로는 구걸하는 앓은뱅이의 모습을 보고, 그의 소리를 듣습니다. 원문에는 이 문장에서 '주목하여 보았다'는 '아테니사스'라는 단어가 맨 앞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번역하지 않은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라는 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떼지 않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상시 그냥 의미 없이 들렸던 앓은뱅이의 구걸 소리가 그에게 특별한 도움의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6절에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귀가 달라지고, 말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후 5:17, 벵후 1:3,4)

둘째, 만족한 삶을 위해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들 안에는 모두 공허한 마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나름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생긴 공허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흠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호흡)를 불어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 영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세상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크고 귀하신 주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돈을 얻기 위해 구걸하고 있는 앓은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이 없고 예수가 있다는 것을 굳이 왜 이야기할까요?

베드로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쁘고 자랑스러운 고백입니다. 금과 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로 가득 채워진 만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서 3장에서 세상에서의 자랑이 되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금과 은이 아닌 예수를 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금과 은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고후 3:5, 빌 4:11~13)

셋째, 능력 있는 삶을 위해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한번 제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참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지식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면서도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나면서 앓은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7절에 '오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앓은뱅이가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설교로 삼천 명, 오천 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고전 4:20)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만족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9/11(월)	9/12(화)	9/13(수)	9/14(목)	9/15(금)	9/16(토)	9/17(주일)
겔21-22	겔23-24	겔25-27	겔28-30	겔31-33	겔34-36	겔37-39

QT

이번 주 QT 말씀

9/11(월)	9/12(화)	9/13(수)	9/14(목)	9/15(금)	9/16(토)	9/17(주일)
히7:1-10	히7:11-22	히7:23-28	히8:1-13	히9:1-10	히9:11-22	히9:23-28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내 삶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나누어 주세요.
3.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